24시간 안에 잡힌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 검거 시계 빨라져 분석·공조 수사 효과

경찰의 살인·강도 등 강력범 '검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기존 직감에 의존하거나 무작정 '발로 뛰다 보면 잡힌다'는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CCTV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범인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가 하면 경찰 간 공조체계도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다.

지난 4일 새벽 3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C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9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의 경우 경찰이 CCTV와 범인 행동 패턴을 빨리 파악하면서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던 사례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주변 CCTV를 뒤져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인천행 버스 탑승 사실을 찾아냈고 용의자 이모(24)씨가 PC방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진술과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해 터미널 인근 PC방을 뒤져 이씨를 붙잡았다. 지난 8월 28일 발생한 광산구 쌍암동 편의점 강도 피의자 황모(28)씨는 범행 8분 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강도 사건(21건) 중 절반(11건)을 발생한 지 3일 이내에 잡았다.

사건발생 뒤 경찰의 신속한 공조 체계가 이뤄져 검거한 사례도 적지 않다.

강진경찰은 지난 10월 2일 가정집에 침입, 홀로 있던 김모(여·62)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80만원을 훔치고 도주한 사건 용의자를 1시간만에 붙잡았다. 사건 발생 뒤 강진 지역 전 경찰력에 대한 긴급 배치 명령이 신속하게 이뤄진 게 버스를 타고 타 지역으로 벗어나려던 이모(38)씨 조기 검거에 도움이 됐다.

지난 10월 21일 밤 9시50분께 담양군 대덕면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윤모(51)씨를 1시간 만에 검거한 사례도 신속하게 이뤄진 주요 도주로에 대한 긴급 배치가 한몫을 했다. 지난 4월 5일 새벽 광양시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치밀한 현장 주변 검색을 통해 용의자 이모(31)씨 두건을 발견, 조기 검거가 가능했다.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진보교육' 광주 혁신학교 학력은 퇴보

9개 중학교 중 7곳 보통학력이상 비율 평균에 못미쳐

지원금 일반학교 보다 1억 더 받고도 중하위권 학생들 만족도 보다 교원 만족도가 더 높아

광주지역 혁신 중학교들이 일반학교에 비해 1억원을 더 지원받고도 학력은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에 중간 평가 시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논쟁은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광주일보가 '하늘교육'과 공동으로 올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중학교의 보통학력이상 비율의 평균은 75.9%,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3.7%였다.

하지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중학교와 예비 혁신중학교의 보통학력 이상 평균은 70.7%로 5.2%포인트 낮았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받은 혁신 중학교 9개교 중 8곳이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곳은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광주 평균에 못미쳤다.

3억원 가까이 지원받은 3년차 혁신학교들도 학력은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4.2%로 광주 평균(3.7%)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혁신학교 9곳 중 6곳은 지난해보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증가했다.

H중학교는 지난해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3.7%였지만 올해 6.6%로 2.9%포인트 급증했다. F중학교는 3.3%에서 5.9%로, D중학교는 1.5%에서 2.7%로 2배가량 늘어났다.

현재 광주에는 혁신학교 18개교가 지정됐다. 초등학교 9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2곳이다. 여기에 올해 예비 혁신학교 8개교를 내년에 혁신학교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교사들에게 교육과정과 학생 평가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줬다. 예산도 2011년과 2012년 학교당 1억원을, 올해 학교 규모에 따라 7100만~9500만원을 일반학교보다 더 지원했다. 예비혁신학교에는 학교당 1500만원씩을 지원했다.

■2013 광주 혁신(예비)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현황 (단위:%)

학교명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A중학교	81.5	16.2	2.3
B중학교	76.9	20.5	2.6
C중학교	75.8	20.7	3.5
D중학교	74.2	23.1	2.7
E중학교	73.0	22.2	4.7
F중학교	68.5	25.6	5.9
G중학교	66.0	30.0	4.0
H중학교	61.4	32.0	6.6
I중학교	58.8	35.8	5.5
광주 평균	75.9	20.4	3.7
전국 평균	75.8	20.9	3.3

한 혁신학교 교사는 "조그마한 학교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억지로 돈을 쓰기 위한 행사를 만들기도 한다"며 "혁신학교에 대한 객관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데 교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교육청 조사 결과, 중학생들의 만족도는 64%에 그친 반면, 교원만족도는 79.5%에 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의 수업 방식이 토론·협동 학습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과서 중심의 문제풀이 방식이어서 혁신학교들의 평가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말고사…대학가는 열공 중 1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대비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도지사 안다" 속여 돈받은 50대에 집유 선고

부군수로 발령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공무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챙긴 50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당인 박모(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5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잘 알고 지내며 돈을 주면 담양군 부군수로 임명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전남도청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목포해경, 조업 중 부상 중국어선 선원 구조

조업중 부상을 입은 중국어선 선원이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1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9일 오후 7시4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약 53㎞ 해상에서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N호 선원 주모(29)씨가 왼쪽 팔 절단 사고를 당했다는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해경은 구조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서 약 25㎞ 떨어진 해역에 있던 1006함(1000t)을 급파, 주씨를 태우고 목포 대형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당시 서해 전 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해경은 3m가 넘는 파도를 뚫고 가 구조 활동을 벌였다.

주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법원,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소송 16일 선고

정시 원서 접수 전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매긴 등급결정의 효력이 유지될지 여부가 대학 정시 원서 접수 전인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수험생 38명이 "수능등급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오는 16일 오후 5시에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동성 커플' 김조광수·김승환 혼인신고…구청은 "수리 불가"

찬반 갈등 클 듯

지난 9월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 영화감독 김조광수(48)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씨가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혼인신고 수리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10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혼인신고서 제출 계획을 밝히고 이를 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커플은 11일 중에 거주 관할지인 서울 서대문구청에 등기우편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조 감독은 "지난 9월 공개리에 한 결혼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자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정식 제출한다"며 "대한민국 성인인 우리의 결혼을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김조 감독 커플의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등기우편으로 서류가 도착하는대로 이들에게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커피 시켜놓고 진열장 보온병 '슬쩍'

쌍나팔

○…커피전문점에서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종업원 몰래 10만원 상당의 보온병을 훔친 30대 주부가 경찰서행

○…1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주부 최모(36)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S커피전문점에서 종업원 백모(여·26)씨가 커피를 만들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서 보온병을 훔쳐 몰래 가방에 넣고 나왔다는 것.

○…최씨는 경찰에서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며 진열장을 둘러봤는데 진열된 보온병이 너무 예뻐 보여 탐이 났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